

교회소식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웨체스터를 비롯해 뉴욕주 전체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음 주 화요일(9일)부터 2단계 업종들(소매업, 전문직, 이/미용실 등)에 대해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종교활동도 사회적 거리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물 수용인원의 25% 한도 내에서 모임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전과 다른 지침이 없는 한 6월21일 주일부터 교인들께서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주일 아침 11시 주일예배에 구역별로 번갈아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자들과 자녀들은 참석이 불가하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영어예배는 모든 규제가 풀린 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회에 인종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일부 폭력과 약탈이 발생하고, 경찰 및 군대와의 충돌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의를 행하시고 갈라진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도록 간구하며, 혹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편견과 증오, 무지와 이기심을 코비드 바이러스를 막고 닦아내듯이 살피고 제거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제20권 22호

2020년 6월 7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섬기는 사람들

5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이효정 집사 (시 116:1-2, 12-19)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전11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Worship & Praise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478장(통78장) “주 예수 넓은 사랑” I Love to Tell the Story
대표기도 Prayer	시편 8편 이현주 집사
특송 Anthem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임대영 집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Word of God	마태복음 5:33-48 Matthew 5:33-48
설교 Sermon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민영 목사
인사 및 광고 Greetings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503장(통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Do you Know the World is Dying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Meet Us Here” 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Matthew 5:1-12 Leader
Sermon	“I Want to Follow Jesus” Pastor Kim
Reflection /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지난 주 주일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5:17-30

율법은 언약 속에서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고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려 함입니다.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자기가 율법대로 순종하여 온전케 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뜻 행하기를 자기 뜻을 이루는 것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을 의롭게 하려는 율법의 목적을,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는 완성할 수 없었던 목적을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셨습니다(롬 8:3-4). 나아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도록 도우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롬 1:17).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었으나, 의로우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피로 드린 화목제물로 인해 우리 죄를 간과한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니고 공의를 완성한 일이었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본래 목적을 이루신 것을 무시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시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를 삼는다면 장성한 후에도 몽학선생을 부모 삼으려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의 의를 이뤄야 합니다. 더 나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정당한 댓가라고 생각하는 만큼만 지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취급해주시는 만큼 온전하러 합니다. 자기의 댓가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면 감추고 변명해야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가 드러나면 인정하고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누구의 의가 뛰어난 겁니까?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다 지키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살인치 말라는 계명의 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웃의 가정을 귀중하고 순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됨으로 완성됩니다.